



##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6-24절

날짜: 4월 5일, 2026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개인 일이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불교나 유교처럼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드신 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희생정신을 가져야 하고, 인류에 봉사한 것처럼 그렇게 봉사해야 한다면 그를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분이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되셨기에, 우리가 가진 죄와 사망으로 인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삼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되셨다는 것이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곧 우리의 사건입니다. 어머니가 건강하면 태아도 건강하고, 어머니가 죽으면 아이도 죽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되셨습니다. 구약 시대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아이 위에 자기 몸을 포개어 었을 때 아이가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

의 아들이 우리와 합해졌을 때 우리 속의 죽음과 죄가 청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의인입니다. 신앙생활은 앞으로 노력해서 구원받겠다는 희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내 속은 거짓투성이인데 왜 내가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지 의심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 느낌이 아니라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내 안의 흑암 세력이 물러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면 염려와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시며 구속자이십니다. 시편 23장의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은, 시편 22장의 십자가 고통(예수의 죽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분만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산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입니다. 주님은 지상에서 죽으시고 지하 음부에 내려가 모든 사망의 권세를 정리하신 후 당당히 부활하여 천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물질이 없으면 두려워하지만, 영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영수증(증서)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분이 대신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죄와 세상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바다의 잔물 속에 사는 물고기 살이 짜지 않은 것처럼,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최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초월적인 삶을 삽니다. 성도는 아담의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새 피조물입니다.

이 생명은 머리 되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수천 명이 모여도 자아가 죽고 예수 한 분으로 통일된 '한 사람'과 같습니다. 성령으로 연결되면 처음 보는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고, 그를 위해 목숨도 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시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죽게 한 것은 옛사람으로부터 해방된 것이고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부터 해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케 하신 것은 새 창조,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자 부활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삶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Sermon of the Week:



From Psalm 22 to 23: From Suffering to New Life in Christ

**Passage:** 1 Cor 5:16-24 (ESV)

**Date:** April 5, 2026

**Pastor:** Dong Suk Chung

People of the world often view Jesus coming into the world, dying on the cross, and rising again as Jesus' own personal matter that has nothing to do with us, and that He was simply the founder of a religion called Christianity, just one of many religions such as Buddhism or Confucianism. Furthermore, there are also many people even inside the church who think that we should follow His example: that just as Jesus died on the cross and rose again, we must also have a spirit of sacrifice, and we must serve humanity just as He served. However, the truth of the Bible is different. The reason God sent His only begotten Son, Jesus, to the world was so that He could become "us".

Because Jesus became us, He died in our place due to the sin and death that we possessed. And He rose again in three days. This means that we died together with Him and were raised to life together with Him. Believing this is the true faith of Christianity. The moment that Jesus became human, He became us—which means His death and resurrection are not distant events, but our own. It is like the bond between a mother and her unborn child. Just as the unborn child lives or dies with its mother, so we live or die with Christ.

Jesus became every one of us. Just as when the prophet Elisha in the Old Testament laid his body over a dead child and the child came back to life,

when the Son of God was joined together with us, death and sin within us were settled once and for all. Therefore, we are righteous before God. The life of faith should not begin with the hope of earning salvation through our future efforts, but must begin from the fact that we are already saved.

We still sin, and we often doubt if we can be called righteous when we are full of deception inside. However, faith comes not from our feelings but from "hearing". As you repeatedly listen to the Word of Christ, the power of darkness within retreats, and the faith that you have become a child of God arises. Then, the Lord comes into me; "I" die, and Jesus becomes the Master of my life.

When the Lord comes into me and becomes my Master, anxiety and worry disappear. He is the Creator and the Redeemer. The confession in Psalm 23,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is a confession made possible because of the suffering of the cross (the death of Jesus) that occurs in the previous Psalm 22. Only He who died and rose again for me becomes my Shepherd.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causes us to be born again and gives us a "living hope". This hope is an "inheritance in heaven" that is imperishable, undefiled, and unfading. The Lord died on earth, descended into Hades to settle all the powers of death, and then triumphantly rose and ascended to heaven. That victory is ours.

We are now people of the Spirit, not people of the flesh. Those belonging to the flesh are afraid when they lack material things, but

those born again of the Spirit can enjoy the abundance of heaven. Jesus' resurrection is the receipt (certificate) proving that we have become righteous. While we remained still, He paid the full price for our sins on our behalf.

The life of resurrection is a life that overcomes sin and the world. Just as a fish living in the salty ocean doesn't become salty itself, one who has the life of the resurrection lives a life that transcends this world of sin. A saint is not of the lineage of Adam, but is a new creation born of God.

This life is connected to the Lord, who is the Head. A true church, even if it consists of thousands, is like "one person"—a single body where individual egos have died—so that all may be unified in Jesus alone. When connected by the Holy Spirit, you feel the pain of a brother you are meeting for the first time as your own pain, and you are able to lay down your life for him. This is the kingdom of heaven.

God put us to death together with Christ and also raised us to life together with Christ. "Being put to death" means being liberated from the old self and being freed from everything other than God. The reason that God resurrected us is for life as a new creation—for us to enjoy everything that exists within God the Father, Son, and Holy Spirit. Entering deeply into the eternal God and enjoying Him is the purpose for which God created us and the purpose of the resurrection.

We pray that this may become the goal of life within us.

### 나성교회 연락처

- +1 562-690-7979
- <https://nasungchurch.net>
- [information@nasungchurch.net](mailto:information@nasungchurch.net)
-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 도서관 운영 시간  
주말 오전 9:30 - 오후 1:30

###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 삼성교회 연락처

- +82 02-2293-4421
- <http://samsungch.or.kr>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00 (우) 04701
- 지하철
  - 2호선 상왕십리역(1번 출구)
  - 2호선 신당역(2번 출구)
- 버스
  - 147, 202, 241, 302, 463, N62, N73, 1017, 2012, 2013, 2014, 2015, 6211, 성동01

### 삼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대예배실 (지하 1,2층)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부	오전 11시	4층 예배실
유년 주일학교	오전 11시	2층 예배실
청소년부	오전 10시 30분	3층 예배실
청년부	오후 2시 30분	3층 예배실